

한지욱, 신희선 가정의 선교편지



한지욱, 신희선, 두 아들
성수, 성찬 그리고 막내
소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예배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양육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 캄보디아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기를 구합니다.
- 성수, 성찬, 소망이가 캄보디아와 인도차이나 반도를 복음화 하는데 앞장서는 청년 전도자가 되기를 구합니다.
- 저희 가정의 건강을 기도해 주세요.
- 홈스쿨에 필요한 선생님들을 순전히 보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 새롭게 시작할 기숙사 사역이 순적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캄보디아의 선교 현장에서 2023 년 첫 날에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연말이라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여러 행사들로 바빴습니다. 저도 교회 이곳 저곳을 다니며 크리스마스예배에 참석하고 현지인 목회자들 및 인도자들과 교재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신희선 선교사는 올해 부터 교육대학원 통신 과정을 시작 했습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일을 병행하며 수업을 듣고 크레딧을 쌓아야 하므로 많은 부담이 가중 됩니다. 선교지에 선교사 마인드의 자격있는 선생님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 입니다. 또 엘리자베스(희선) 선교사의 학교에서의 기여도를 높여야, 아이들이 계속 교육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상황 설명을 해 주고 엄마를 적극 돕고 후원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선교사가 공부와 사역을 잘 병행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지욱 선교사는 올 한 해 사역도 예전과 같이 꾸준히 이곳 저곳을 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사역으로 전환한 후에 주일에는 시골 교회 두 곳을 섬기고, 주중에는 팀을 이루어서 각지를 다니며 말씀을 전합니다. 주중에 팀을 이루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팀사역 입니다. 이 사역은 여러가지로 변수가 많습니다. 회중의 수준과 구성 상황이 그때 그때 다르고 시간과 공간에 여러가지 돌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문화의 특성상 시간약속을 잘 지키지않거나 약속을 해 놓고 다른 사람을 보내는 일도 있고, 약속을 해 놓고 갔더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목회자 및 인도자 재교육 이라고 했고 그들을 모아 달라고 했는데 초신자들과 청년들이 대부분 앉아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와 있는게 어디야..." 하며 사역을 진행합니다. 어떤 경우여라도 말씀을 기쁘게 전해야 하는 것이 선교사의 임무라 항상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려고 노력 합니다.

최근에는 8시간을 걸려 운전하고 갔습니다. 2 곳에서 말씀을 전하려 했는데 농번기라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서 한 곳의 사역을 취소하고 길바닥 옆에서 비닐을 깔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중간에 경운기, 자동차, 트럭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게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성도들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연약한 이들이지만, 이들 나름의 수준대로 믿음 생활을 하기에 잘하고 있다...계속 가자...한 걸음 더 가자 ... 하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13



주일교회 사역은 현재 신약성경을 위주로 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따라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주중에 집에서 스스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신약성경 요한복음과 로마서 한 권을 정해서 써오라 하고 잘 써온 아이들에게 배낭을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써온 아이들 중에는 대부분 말씀을 “절”을 교묘하게 빼먹고 써온 아이들도 있고, 각 장의 필체가 다 달라서 서로 열심히 협력(?)한 티가 납니다. 아이들이 참 똑똑(?) 합니다...제가 모를줄 알고 있다가 그것을 지적하면 얼굴이 발갱게 됩니다. 그나마 여학생들은 착실히 써 오지만 남학생들은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라도 해서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생각해 보게끔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매일 함께 거주하면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지 않으면 삶이 말씀으로 바로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기숙사 사역을 하여야 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올해 부터 본격적으로 기숙사 사역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두번 만나서 말씀 전하는 것도 좋지만, 이들을 주의 제자로 만들려면 매일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가며 기도하고 말씀을 먹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화가 다른 이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방법밖에 없기에 미루고 미루던 일이지만 기어이 시작 하려합니다.

현재 두 아이들에게 방과후 학습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학업에 전념하게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후원 한다고 해도 함께 하면서 훈련 시키지 않으면 크게 변하는 것을 기대할수 없기에 끼고(?) 살면서 가르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결론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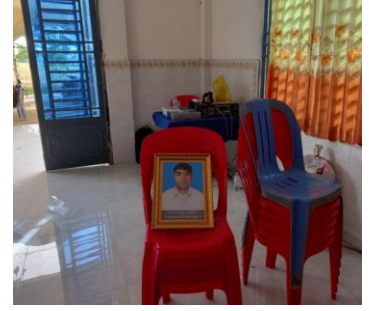


한 예로 아는 지인분이 헌금을 보낼테니 현지에 교회를 지을 수 있냐고 물어 보십니다. 교회 짓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라 보람있어 보이지만, 시골교회 대부분은 인도자가 없으면 건물이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돕는 교회도 어떤 분이 후원해서 예배처소를 지어 드렸는데 인도자가 생활이 어려워서 공장으로 일하러 가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곳이 바로 그 곳 입니다. 이것이 건물 보다 사람을 먼저 세워야 하는 이유 입니다. 땅사주고 교회 지어줘도 자신들의 믿음과 정성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흐지부지 없어집니다. 이들이 가난해서 헌금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헌금 안하고 섬기지 않는 것 입니다.그래서 어릴때 부터 붙잡아 놓다시피 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단기선교팀들이 오셔서 이들의 선해(?) 보이는 눈망울에 반해 속습니다(?). 겉으로 선해 보여도 이들을 지배하는 완악한 문화를 바꾸려면, 지지고 뷰더라도 함께 살면서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기숙사 사역을 하기 위해선 초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숙식하며 예배를 드릴 집을 빌려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와 물건들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일정량의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저희의 재정은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도 지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불규칙적으로 보내 주시는 후원과, 아내 희선 선교사가 학교 일을 하면서 생활과 사역을 꾸려 가지만, 기숙사 사역으로 들어서면 매달 일정금액의 고정적인 물질과 기도의 후원이 필요 합니다.

.....부끄러운 일 이지만 고백합니다.

현지인 형제가 크리스마스새벽에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귀신들려서 오랜 세월 고통 받던 형제입니다. 불이 났을 땀 발목에 묶인 족쇄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기도는 꾸준히 해 주었지만 내가 능력이 부족해 돕질 못했다는 죄책감이 큼니다. 내가 그토록 많이 듣던 놀라운 간증이 왜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 힘이 듭니다.



선교지에 살면서도 성령충만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랑하기보다 싸울때가 많았고, 용서하기 보다 마음속에서 두고 두고 원수처럼 씹어댈 때가 더 많았습니다.

동료 선교사를 축복하기 보다는 내 처지를 한탄하며 질투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화를 내고 정죄했습니다. 설교하고 들어와서 아이들과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기도하라고 해 놓고 내가 기도가 안될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한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칠한 무덤 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되나...이래도 되나...하면서 나님의 선택을 의심 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때가 많았지만, 동시에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람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다시한번 깨닫습니다. 부족한 영혼임에도 기도와 헌금으로 함께하신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달려왔음을 압니다.

내년 2023 년 4 월에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목사안수도 받아야 됩니다. 신희선 선교사도 사실 많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5 년만에 갖는 안식월 입니다. 미국에서 3 개월을 지내면서 재충전도 하며 지난 사역을 복기 하려 합니다. 제게는 미국가는 것이 마치 재판 받으러 가는 기분 입니다...뭐 하나 해 놓은게 없어서 스스로 답답할 뿐 입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 묻혀 있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미국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던간에 해야 할 일이 있기에 가서 뵙고 선교지의 소식을 가감 없이 전해드리려 합니다.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옥, 신희선 드림.

저희 가정과 동역하며 후원 하실 분들을 환영 합니다. 모든 후원은 **Tax Deductible**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표에는 BBE 라고 쓰시고 메모칸에는 HAN / SHIN Family 라고 쓰시면 됩니다.

주소 : Bridge Builders Education, 501 Prospect Ave, Ridgefield, NJ 07657

Or Zelle to lizshin@gmail.com